코로나19 대응 관련
해외 환경정책 동향

2020. 5. 22.

(기간 : 5. 18 ~ 5. 22)

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국 가 환 경 정 보 센 터

동향자료 요약

국가/국제기구	주요 내용
전세계 (공통)	- 코로나19 봉쇄 기간, 전 세계 이산화질소 수치 급감(5.18) ‣ Geophysical Research Letters의 연구진은 2020년 봉쇄 기간 동안 작년 동기대비 이산화질소 오염 수치가 중국은 평균 40%, 서유럽은 20%, 미국은 38% 감소했다고 밝힘. 2p
	- 2020년,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4~7% 감소 예상(5.21) ‣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7%까지 급감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이나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보고함. 2p
인도	- 인도, 40년 만에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(5.20) ‣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전기 사용 감소와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로 인도의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고, 3월 코로나19로 봉쇄조치가 내려지면서 37년 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섬. 3p
몰타	- 몰타,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 제품 목록 발표(5.20) ‣ 몰타 경쟁 및 소비자 담당 당국(MCCAA)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(Europe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)의 지침에 따라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소독제 제품 목록을 발표. 3p
덴마크	- 손 소독제 추가 리콜(5.22) ‣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(DDAAC)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성분을 기반으로 한 소독제가 바이러스 퇴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하여 리콜을 지시함. 3p
칠레	- 칠레, 코로나19로 폐기물 재활용율 급감(5.22) ‣ 칠레 폐기물 단체 Recycling Movement는 자택격리된 시민들이 점점 더 재활용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함. 3p

(전세계, 인도, 몰타) 코로나 관련 외신

□ (전세계) 2020년 초 중국 북부, 서유럽 및 미국의 **이산화질소 오염 수치**가 **작년 동기대비 급감함**(5.18)

ㅇ Geophysical Research Letters의 연구진은 위성을 이용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, 대한민국,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, 이란 및 미국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이산화질소 수치 변화를 살펴봄.

- 2020년 봉쇄기간 동안 **작년 동기대비 이산화질소 오염 수치**가 **중국은 평균 40%, 서유럽은 20%, 미국은 38% 감소했다고 밝힘**.

- 그러나 **이란**에서는 이산화질소 수치가 **감소하지 않았음**. 연구진은 이란에서는 3월 말까지 **봉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자택 대기명령을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**이라고 판단함.

☞ https://airqualitynews.com/2020/05/13/new-studies-reveal-drastic-fall-in-global-no2-levels-during-lockdown/

□ (전세계) 학술지에 따르면 4월 초, **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**로 전 세계 **이산화탄소 오염 수치가 작년 동기대비 17% 감소**함(5.21)

ㅇ 2020년 1~4월까지 **중국, 미국, 유럽연합 및 인도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감소량**이 **전 세계 배출 감소량의 ⅔를 차지**하고, 이는 **약 10억 톤**이 넘는 양임.

ㅇ 주 저자는 인구 이동 제한이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, 이 같은 **급감 추세는 경제, 운송 또는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**일 수 있다고 밝힘.

- 만약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은 상태로 **6월 중순까지 회복된다면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4%만 감소**할 것이라 분석함. 그러나 **봉쇄조치로 인한 제약이 1년 내내 계속된다면 배출량이 약 7% 감소할 것으로 예상**함.

☞ https://phys.org/news/2020-05-global-co2-emissions-.html

□ (인도) 인도의 **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**했으나 이는 **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**(5.20)

ㅇ Carbon Brief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**전기 사용 감소와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**로 인도의 **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분석**함. 그리고 3월, 코로나19로 인도 전역에 갑작스러운 **봉쇄조치가 내려지면서 37년 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세**로 돌아섬.

- 연구진은 3월, **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% 감소**했고 4월에는 30%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.

☞ https://www.bbc.com/news/world-asia-india-52614770

□ (몰타) 몰타 정부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**소독제 제품 목록을 발표**함(5.20)

ㅇ 당국에서 발표한 목록은 몰타 내 취급 허가를 받은 제품임.

☞ http://mccaa.org.mt/Section/Content?contetId=1131

□ (덴마크) 덴마크 환경보호국은 추가로 **손 소독제를 리콜**함(5.22)

ㅇ 이번에 즉각 리콜 지시를 받은 기업은 Elite Treading A/S, Socco A/S, Sæbefabrikken A/S임.

ㅇ 해당 업체들은 **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(DDAC)을 유효성분**으로 사용하거나 **해당 성분을 기반으로 한 손 소독제 제품을 판매**함.

- 덴마크 환경보호국은 **DDAC가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학규제에 맞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진행**했다고 덴마크 환경보호국에서 언급함.

☞ http://www.mst.dk/service/nyheder/nyhedsarkiv/2020/maj/haanddesinfektionsprodukt-tilbagekaldes/

□ (칠레) 약 5,000명의 칠레 폐기물 수거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인 Recycling Movement는 **자택 격리된 시민들이 점점 더 재활용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**함(5.22)

ㅇ 칠레에는 **재활용품을 분류해 도로변에 내놓으면 이를 수거해가는**

방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이용하기 위해 시민들은 걷거나 운전을 해야 함.

-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수거함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짐.

○ 2018년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지만 약 1% 미만의 폐기물만을 재활용하거나 퇴비로 만들고 있음.

- 단체 관계자는 재활용하던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더는 하지 않아 폐기물 수거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힘

☞ 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health-coronavirus-chile-recycling/chiles-trashpickers-say-recycling-latest-casualty-of-coronavirus-idUSKBN22W2MB